

# 무궁한 법의 보배 무궁한 수행으로 세상 밝히네

## 54 숨쉬는 법의 도량 해인사

법보종찰 해인사. 해인사가 법보종찰인 것은 그곳에 팔만대장경이라 부르는 고려대장경이 모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율해는 고려대장경 주조 1000년을 맞는 해로 합천군과 해인사 등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야산 전체가 하나의 도량이라면 해인사는 그 도량의 중심공간, 금당에 해당하는 위치입니다. 전후 좌우로 여러 암자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 암자들도 각자 일가(一家)를 이룬 문종의 거점입니다. 그만큼 근현대에 큰스님들이 많이 배출된 도량입니다.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밝히신 등불이 면면이 이어져 세계를 밝히듯, 가야산에서도 선지식들이 법등을 이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면면한 가풍은 부도밭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옛 스승들의 부도와 탐비는 전해지지 않고 근현대 선지식들의 행장만 전하지만 해인사 부도밭은 커다란 법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주문에 닿기 전 길가 오른쪽에 즐비한 비석들과 함께 지월(指月; 1911~1973) 인곡(麟谷; 1895~1961) 스님의 비를 만나고 해인사 사적비와 길상탑 그리고 고려시대의 원경대사비를 견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 조성된 부도밭으로 가면 앞에서부터 자운(慈雲; 1911~1992) 스님의 부도와 탐비, 해암(慧庵; 1920~2001), 일타(一陀; 1929~2000), 영암(映巖), 명진(明振) 스님의 부도와 탐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 너른 공간에 성철(性徹; 1912~1993) 스님의 부도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신이 번쩍 드는 큰스님들입니다. 법보종찰 해인사를 명실공히 해인사에게 한 분들이 것입니다. 방장과 종정을 지냈다는 이력보다 자극한

“스님의 얼굴을 보는 이나 그 음성을 듣는 이가 모두 함께 마음에 조용함을 느끼니 이것은 스님의 구김 없는 수행력 방편 삼매력이다.”

인곡 스님은 전남 영광에서 출생해 14세에 백양사로 출가했습니다. 20세에 팔공산 금당 탑전에서 백일용맹정진을 하던 중 꿈속에서 가사 한 벌을 받는 경험을 하고 그것이 공부의 참모습은 아님을 깨우칩니다. 이후 곁방을 메고 두타행에 나섰으니 활달자재한 선사의 길을 스스로 열어가 간 겁니다. 예산 보덕선원에서 보월화상을 모시고 정진하고 금강산 마하연에서 만공 스님을,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 해월 스님 등을, 도봉산 망월사에서 용성 스님을 모시고 정진하고 배알하며 자성의 등불에 기름을 더했습니다.

1945년 이후 해인사에 머물며 후학들을 지도하고 장경각에서 천일기도를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무렵 스님이 헌식(獻食)을 하면 많은 새들이 스님의 몸에 달라붙어 합장을 하는 듯 했다고 합니다. 스님은 제자 해암 스님에게 법을 전했습니다. 일타 스님이 찬한 비명에 스님의 가풍이 잘 묘사돼 있습니다. 한 대목을 읽어 봅니다.

청정한 법계신은 본래출몰이 없건만 대비하신 원력으로 시현수생(示現受生) 하시니 불중(佛中)에 무상(無相)인가 상중(相中)에 무불(無佛)인가 강산만리에 일조풍월(一條風月)은 밝기만 하다.

비림의 아래쪽에 근래에 조성된 새로운 부도밭이 있습니다. 맨 앞에는 자운당 성우(盛祐) 율사의 부도와 탐비가 있습니다. 1997년에 건립했습니다. 강원도 진부에서 출생한 자운 스님은 동네로 탁발 나온 해운(慧雲) 스님과의 기연으로 해인사 팔만대장경각에서 1만 배를 울리고 나서 출가했습니다. 자



해인사 일주문 앞 비림 전경

까지 하여 청정승단의 전통지계정신마저 흐리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의 유일한 장정(長程)을 개시하여 이계위사(以戒爲師)의 부처님 유훈을 받들어 근본적인 불교종중을 몸소 실천하신 한국불교의 탁월한 정신적 지주인 대울사가 계셨으니 자운 율사가 바로 그 분이시다.”

자운 스님은 계율의 중흥조이기도 하지만 종단의 혼란상을 수습하고 멸실된 재산을 되찾는 등 애종심을 펼쳐 보였습니다. 선은 부처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 말씀이며 계는 부처님의 행동이라 합니다. 행동함에 있어 계율에 어긋나지 않으면 이미 그 정신의 높고 깊음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계율의 중흥조 자운 스님의 '일명사리탑' 앞에서 21세기의 계율을 생각해 봅니다. 율학을 연구하는 스님들과 학자는 많습니다. 연구의 차원이 아니라 실천의 차원에서 계율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풍족한 물질과 기술의 발달이 삶의 양상을 급속히

변화시키는 요즘, 승가의 계율정신은 근원적으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자' 하거나 '초발심을 잃지 말자' 하는 등의 구호는 난무하지만 정녕 현대사회에 맞는 승가의 생활상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연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계율의 절대성과 시대 변화의 속도가 어떻게 절충되어야 할지 중요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운 스님의 부도 뒤로 한 단 올라서면 해암 스님의 부도와 탐비가 왼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다 죽어라"하는 가르침이 스님의 평생 주석처인 원당암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07년에 건립된 스님의 부도는 석종형이고 기단석의 네 귀퉁이에 사자상이 단정히 앉아 스님의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타 스님의 부도는 전통 양식을 따르지 않은 창작입니다. 사각의 돌을 몸으로 삼아 구름과 용과 사자 연꽃 등 다양한 수작업으로 표현했는데 부도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도의 형태적 변화는 성철 스님의 부도가 먼저입니다. 너른 공간을 차지해 조성 직전에 이견도 없지 않았지만 성철 스님의 부도는 우주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조각에서 부도의 새로운 조형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초입에 작은 안내판이 서 있는데 '퇴옹당 성철대종사 사리탑 나를 찾아가는 선의 공간'이라는 제목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성철 스님의 부도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조형언어입니다. 스님이 생전에 서릿발 같은 법어로 불자들의 혼미한 정신을 일깨웠다면 부도는 적요한 공간 속에서 차분하게 우주의 진리를 설파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신사 한 분이 성철 스님의 부도 앞에서 삼배를 올리고 나서 부도의 돌레를 따라 천천히 걸읍니다.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게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행선(行禪)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귀에는 "자기를 바로 보라"는 목소리도 들릴 것이고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법어도 들릴 것입니다.

해인사 부도밭은 살아 있는 선원이요 강원이요 율원입니다. 또 열불도 그치지 않는 무궁한 공덕의 공간입니다. 해인사가 법보 종찰이듯 부도밭도 법의 공간입니다. 거기 무한의 법문을 설하신 근현대의 대선사와 대강백 대울사가 다 함께 나누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글=임연태(시인·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사진=이승현(시인 사진작가)

## 근현대 한국불교 대표하는 선교율의 종장들 법향 가득 성철 일타 스님 부도 우주적 메시지 담은 조형언어

수행으로 스스로의 등불을 밝힌 분들이기에 그 이름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지월 스님의 비를 봅니다. 3단으로 좀 높게 쌓은 지대석 위에 목을 앞으로 쭉 내민 귀부가 콧구멍을 벌름거립니다. 아담하면서도 당당한 거북이 등에 받치고 있는 오석 비신 앞면은 단정한 글씨가 가득합니다. 지월 스님은 1911년 전북 남원에서 출생해 16세에 월정사로 출가 했습니다. 지암 스님과 한암 스님에게 배우고 25세에 구족계를 받은 뒤 금강산 마하연에서 만공 스님을 모시고 정진하다가 깨침의 기연을 만납니다. 일타 스님이 찬한 비문에는 지월 스님의 성품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운 스님은 평생 계율을 연구하고 몸소 실천해 한국 불교 계율을 중흥 진자 시킨 선지식으로 추앙됩니다. 제자 지관 스님이 찬한 비문의 앞부분을 읽어 봅니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 된지 어언 160년에 이르는 동안 계율을 전공한 스님은 신라시대에는 자장과 진표 양대 율사이며 백제에는 경의율사이고 고려조에는 뚜렷이 찾아볼 수 없으며 조선시대에는 배불정책으로 불교가 위축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인순 양조(仁純兩朝)를 전후하여 금당과 대은 양대 율사가 배출되었다. 일제강점기는 한국의 전통불교를 말살하려는 흉책으로 계율을 무시하고 대처식육도목



성철 스님 사리탑의 중심부



해암 스님 부도와 탐비

## 주얼드림 은(銀)의 모든것

주얼드림은 은(銀) 99%로 만든

염주 · 단주 · 금강저 · 반지 · 목걸이 · 핸드폰줄 · 백옥 · 청옥 · 자수정 · 호한석 등 기타 다양한 제품생산 기업입니다.

제품소개를 지면으로 다하지 못하오니 연락주시면 책자(카달로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얼드림(석도) JEWELDREAM · 본사 공장 및 영업부: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793-2번지  
031)969-9495 / 070-4128-9495 / 011-441-9495

인터넷 쇼핑물 NAVER 주얼드림 검색 www.jeweldream.co.kr



##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 주머니) ⇨ 32,300원

· 크기: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물에서 잠시(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물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물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으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향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곁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가습기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약 170개

구입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